

초등학생의 색조화장행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초등 고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The Study on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Makeup Behavior : Based on the survey of Upper Grade Girls

저자 (Authors)	강명주, 김보빈 Myong-Ju Kang, Bo-Bin Kim
출처 (Source)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8(1), 2018.6, 69-78(1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화장품미용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smetics and Cosmetolog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83780
APA Style	강명주, 김보빈 (2018). 초등학생의 색조화장행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8(1), 69-7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초등학생의 색조화장행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초등 고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명주* · 김보빈**

* 명지전문대학교 뷰티매니지먼트과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접수일 : 2018년 05월 08일, 수정일 : 2018년 06월 28일, 채택일 : 2018년 06월 29일

The Study on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Makeup Behavior : Based on the survey of Upper Grade Girls

Myong-Ju Kang* · Bo-Bin Kim**

* Professor of Beauty Art at Myongji College

** Department of Clothing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recognize makeup from the perspectiv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and 288 of them were surveyed. The data collected in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As a result, According to a surve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friends with full makeup, 34.7 percent of them felt that they did not want to follow. Also, the result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friends who do not wear makeup at all was 44.8 % of the students who do not care about friends who do not wear makeup at all. A good student friend who does not wear makeup is an ideal student award from the school or society. Howev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usually indifferent or unconscionable for these students. The gap between the rules established by the school or society and the actions recognized and expected by the actu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a clear example of the gap between the two.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consensus and to embrace each other between students, schools and society.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keup, Peer group, Recognition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는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사회적·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모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4차 산업시대를 시작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초고도화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거대한 파급력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국내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 고학년의 경우 스마트폰 보유율이 74.2%에 달하는¹⁾ 환경에서 대중매체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하는 10대 또래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화장법 등을 따라 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서 색조화장을 하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이들 사이에서 외모 관리는 중요한 공통의 관심사로 자신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자신의 외모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또래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³⁾ 나타나는 추세이다.

성장기 청소년 및 초등학생들의 잘못된 화장품 사용방법

† Corresponding author : Bo-Bin Kim

Tel : [REDACTED]

E-mail : bobin611@naver.com

으로 인해 피부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모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색조화장행동을 일상화 하는 등 왜곡된 외모가치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10대부터 하는 색조화장은 인체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인 근거의 연구⁴⁾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걱정스러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교의 색조화장행동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한 주제로 지금까지의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김미지(2014)⁵⁾의 ‘초등학교생의 화장품사용 실태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박선애(2007)⁶⁾의 ‘학령기 아동의 외모 및 신체 만족도와 화장품사용 실태 조사’, 유애란(2014)⁷⁾의 ‘프리틴 세대의 화장품 사용실태와 화장품 구매성향에 관한 연구’, 장선미(2013)⁸⁾의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등 청소년 및 초등학교생의 화장품 사용실태와 구매 행동에 관한 산업적 접근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초등학교생의 화장행동에 대한 심리적 접근의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의 관점에서 색조화장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화장과 외모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지향하는 사회적 공론을 제안하며 아울러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품기획은 물론 심리적 건강까지 고려하는 관련 업계의 마케팅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생의 색조화장행동과 외모만족도

‘색조화장’이란 일반적으로 메이크업(Makeup)과 같은 뜻으로, 색조화장품을 사용하여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더욱 돋보이게 하고, 결점은 수정하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화장행동을 일컫는다.⁹⁾ ‘초등학교생의 색조화장행동’도 이와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생의 색조화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로 진입하기 전인 만 10~12세의 아이들을 프리틴(Preteen)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용어는 ‘~이전의’라는 뜻의 ‘프리(pre)’와 만13~19세의 청소년을 뜻하는 ‘틴(teen)’이란 단어의 결합어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대중매체와 친숙하고 인터넷 사용에도 능숙한 영향으로 정신적으로는 청소년과 다를 바 없는 조숙한 면모를 보이는 특징을 가진 세대를 말한다.¹⁰⁾ 인

터넷이 생활 일부가 된 프리틴 세대는 대중매체의 노출로 인해 연예인을 동경하여 의복과 액세서리, 화장법, 몸짓 하나까지 모방한다. 또한 이들은 성인보다 또래 집단이 자신과 더 유사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가족을 벗어나 또래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동조성이 인터넷 정보 파급력으로 인한 모방 심리와 결합하여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¹¹⁾ 자신들만의 ‘미의 기준’을 만들고 어른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색조화장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외모를 가꾸고 수정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된다.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그러한 외모만족을 통해 또래 집단에서도 인정을 받으려하기도 한다.¹²⁾

‘외모만족도’는 Secord and Jourard¹³⁾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외모만족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외부로 표출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매력적인 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갖고, 보다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지각의 긍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모만족도란 외모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¹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비교대상을 연예인과 같은 평범하지 않은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매력을 인식하기보다는 비교대상과의 격차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¹⁵⁾ 이러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외모만족도가 낮아지면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더욱 적극적인 색조화장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명주(2014)¹⁶⁾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아가치감이 낮은 여자청소년들이 화장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정연(2017)¹⁷⁾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화장 인식에서 화장의 기능은 ‘예뻐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만족도가 커진다’가 조사 대상자의 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는 등 관련 선행연구결과 초등학교생을 포함한 청소년은 색조화장행동을 통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심리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초등학교생의 색조화장품 사용실태 및 업계동향

최근 초등 고학년 여학생들의 화장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김주덕(2017)¹⁸⁾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42.4%가 색조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6학년의 경우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많

은 종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화장품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5, 6학년이 5학년 때 처음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많은 것에 비해 4학년은 3학년 때 처음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색조화장을 일찍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선애(2007)¹⁹⁾의 연구에서도 초등 5, 6학년의 여학생들은 40% 이상 색조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초등학생들의 색조화장행동은 10년 이상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으나, 과거에는 주로 립틴트와 네일컬러 제품 등 국소적인 범위의 사용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색조화장품 사용빈도 뿐 아니라 사용제품의 종류 또한 크게 늘어 색조화장을 시도하는 초등학생의 화장범위가 립 외에도 피부표현과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크라, 블러셔까지 이른바 풀 메이크업(Full Makeup)양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높아지고 새로운 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화장품 브랜드들은 10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색조화장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10대들이 부담 없이 색조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로 편의점을 채택하는 등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으며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대 화장품 시장은 매년 20% 정도씩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초등학생의 피부는 산성 보호막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성인피부보다 건조한 편이고 성인피부처럼 탄력적이지 못하며 피하조직의 지방층이 성인보다 더 얇기 때문에 추위나 충격에 의한 보호 작용이 뒤떨어진다.²¹⁾ 실제로 성인보다 피부 두께가 얇아 화장품 흡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기초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색조화장은 성장기에 있는 10대들의 어린 피부의 재생을 막아 자극을 주며,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²²⁾ 어린이용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피부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에 대한 신뢰와 올바른 화장품 사용문화의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나, 화장품 법령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류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만 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의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의견을 수용해 ‘어린이용 제품류’ 유형을 신설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만큼 어린이용임을 표시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²³⁾ 이를 위해

적색 102호)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과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개 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등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은 ‘영유아용 화장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 6월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한 절차에 있다.²⁴⁾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전국 여자초등학생 4~6학년 28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1월 10일부터~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30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가 되지 않는 6부와 응답이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한 28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화장행위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장선미(2013)²⁵⁾의 선행 논문을 참고한 총 18문항(하위 문항 포함)의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 3문항, 화장행위에 관한 인식 15문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을 묻는 세부 문항을 두었다. 단 연구는 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의 화장행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빈도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Sortation	Frequency	Percent(%)
Grade	4th	89	30.9
	5th	98	34.0
	6th	101	35.1
School records	Top	88	30.6
	Middle	181	62.8
	Worst	19	6.6
Mother's job	Housewife	116	40.3
	Office	46	16.0
	Professional	37	12.8
	Service	62	21.5
	Production	27	9.4
	Sum	288	100.0

총 288명 중 학년별로는 6학년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9.4% 순으로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5학년 34.0%, 4학년 30.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별로는 중 수준이 6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상 30.6%, 하 6.6% 순이었다. 어머니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30.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직 21.5%, 사무직 16.0%, 전문직 12.8%, 생산직

2. 외모고민

초등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고민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Concern about One's Appearance (Multiple Responses)

	Sortation	Frequency	Percent(%)
	Face	189	37.6
	High	128	25.4
	Weight	140	27.8
	The others	14	2.8
	Have no worries	32	6.4
	Sum	503	100.0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모 중에 얼굴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몸무게 27.8%, 키 25.4%, 기타 2.8% 순으로 나타났고, 고민이 없는 학생은 6.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외모 중에 얼굴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법을 이용해 여성의 연령대별 외모인식을 연구한 고희자(2015)²⁶⁾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얼굴에 대한 고민해결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3. 화장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초등학생들이 화장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화장품과 관련된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얻는 학생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과 기타 15.6%, TV/라디오광고 13.5%, 뷰티 방송정보 11.1%, 화장품 가게 직원 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조성이 강한 또래 집단의 특성을 시사한다. 유애란(2014)²⁷⁾의 연구에서도 ‘친구추천’이 28.7%로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Table 3. Information Sources about Cosmetics

Sortation		TV/ Radio	Newspaper	Internet	Cosmetic market	Family/Frie nd	Beauty program	The others	Sum	χ ² (df)	p
Grade	4th	14 (15.7)	2 (2.2)	9 (10.1)	8 (9.0)	30 (33.7)	9 (10.1)	17 (19.1)	89 (30.9)	12.31 (12)	0.421
	5th	14 (14.3)	1 (1.0)	13 (13.3)	8 (8.2)	34 (34.7)	10 (10.2)	18 (18.4)	98 (34.0)		
	6th	11 (10.9)	3 (3.0)	23 (22.8)	12 (11.9)	29 (28.7)	13 (12.9)	10 (9.9)	101 (35.1)		
School records	Top	12 (13.6)	2 (2.3)	11 (12.5)	8 (9.1)	30 (34.1)	8 (9.1)	17 (19.3)	88 (30.6)	2.57 (6)	0.861
	Below average grades	27 (13.5)	4 (2.0)	34 (17.0)	20 (10.0)	63 (31.5)	24 (12.0)	28 (14.0)	200 (69.4)		
Mother's job	Existence	16 (9.3)	1 (0.6)	33 (19.2)	17 (9.9)	57 (33.1)	18 (10.5)	30 (17.4)	172 (59.7)	14.93* (6)	0.021
	Nothing	23 (19.8)	5 (4.3)	12 (10.3)	11 (9.5)	36 (31.0)	14 (12.1)	15 (12.9)	116 (40.3)		
Sum		39 (13.5)	6 (2.1)	45 (15.6)	28 (9.7)	93 (32.3)	32 (11.1)	45 (15.6)	288 (100.0)		

* $p < .05$, ** $p < .01$

4.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주의 경험과 그 후 변화

1)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주의 경험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8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13.2%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66$, $p < .05$). 학교성적별로는 중 이하 수준인 학생이 상 수준인 학생보다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Table 4. Experience of Caution from Parents or Teachers

Sortation		Yes	No	Sum	χ^2 (df)	p
Grade	4th	6 (6.7)	83 (93.3)	89 (30.9)	8.66* (2)	0.013
	5th	11 (11.2)	87 (88.8)	98 (34.0)		
	6th	21 (20.8)	80 (79.2)	101 (35.1)		
School records	Top	9 (10.2)	79 (89.8)	88 (30.6)	0.97 (1)	0.324
	Below average grades	29 (14.5)	171 (85.5)	200 (69.4)		
Mother's job	Existence	23 (13.4)	149 (8.6)	172 (59.7)	0.01 (1)	0.914
	Nothing	15 (12.9)	101 (87.1)	116 (40.3)		
Sum		38 (13.2)	250 (86.8)	288 (100.0)		

* p<.05

2)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주의 후 변화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주의를 받은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주의를 받은 후에 티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색조화장을 한 학생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색조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23.7%, 기타 15.8%, ‘부모님 또는 선생님을 설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와 ‘부

모님, 선생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서 몰래 사용하였다’ 7.9% 순으로 나타났다. 유애란(2014)²⁸⁾의 연구에서 화장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을 하는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항상’ 색조화장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티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색조화장을 하는 학생이 많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Table 5. A Change after Caution the Use of Cosmetics

Sortation	Frequency	Percent(%)
Don't use makeup cosmetics.	9	23.7
Make up naturally	17	44.7
Persuade one's parents and teachers	3	7.9
Make up secretly	3	7.9
The others	6	15.8
Sum	38	100.0

5.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에 대한 인식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와 같이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에 대해 ‘따라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심이 없다’ 31.6%,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 29.5%, ‘멋지다고 생각한다’ 4.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5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보다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에 대해 따라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인식하였고,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관심이 없었고,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10$, $p<.05$). 학교 성적별로는 상 수준인 학생이 중 이하 수준인 학생보다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에 대해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중 이하 수준

인 학생은 상 수준인 학생보다 ‘따라 하고 싶지는 않다’와 관심이 없었으며,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02$, $p<.05$).

이와 같이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상위권일수록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외모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해가면서 학생다운 모습에 대한 자기성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로 사료된다. 송현영(2013)²⁹⁾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화장동기로 ‘심리적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가치관이 성숙할수록 또래 친구의 영향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외모만족도가 색조화장행동과 인식에 더 큰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Table 6. Recognition of a Friend in Full Makeup

Sortation	Great	Don't follow	Don't get near	Indifference	Sum	χ^2 (df)	p
Grade	4th (7.9)	29 (32.6)	18 (20.2)	35 (39.3)	89 (30.9)	13.10* (6)	0.041
	5th (3.1)	38 (38.8)	28 (28.6)	29 (29.6)	98 (34.0)		
	6th (2.0)	33 (32.7)	39 (38.6)	27 (26.7)	101 (35.1)		
School records	Top (3.4)	23 (26.1)	37 (42.0)	25 (28.4)	88 (30.6)	10.02* (3)	0.018
	Below average grades (4.5)	77 (38.5)	48 (24.0)	66 (33.0)	200 (69.4)		
Mother's job	Existence (5.2)	64 (37.2)	49 (28.5)	50 (29.1)	172 (59.7)	2.94 (3)	0.401
	Nothing (2.6)	36 (31.0)	36 (31.0)	41 (35.3)	116 (40.3)		
Sum	12 (4.2)	100 (34.7)	85 (29.5)	91 (31.6)	288 (100.0)		

* $p<.05$

6. 색조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한 인식

색조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Table 7〉와 같이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에 관해 관심이 없는 학생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해지고 싶다’ 44.4%, ‘따라 하고 싶지는 않다’ 8.3%, ‘답답한 학생이다’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풀 메이크업을 하는 친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결과와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전체적인 진한 화장에는 거부감

을 느끼고, 색조화장을 하지 않거나 약간의 색조화장을 적당한 화장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성적별로는 상 수준인 학생이 중 이하 수준인 학생보다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 친해지고 싶어 하였고, 중 이하 수준인 학생은 상 수준인 학생보다 관심이 없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Recognition of a Friend in No Makeup¹⁾

Sortation	Stay close.	Frustrating student	Don't follow	Indifference	Sum	χ^2 (df)	p	
Grade	4th	44 (49.4)	2 (2.2)	5 (5.6)	38 (42.7)	89 (30.9)	6.86 (6)	0.334
	5th	48 (49.0)	1 (1.0)	8 (8.2)	41 (41.8)	98 (34.0)		
	6th	36 (35.6)	4 (4.0)	11 (10.9)	50 (49.5)	101 (35.1)		
School records	Top	43 (48.9)	2 (2.3)	10 (11.4)	33 (37.5)	88 (30.6)	3.47 (3)	0.325
	Below average grades	85 (42.5)	5 (2.5)	14 (7.0)	96 (48.0)	200 (69.4)		
Mother's job	Existence	75 (43.6)	6 (3.5)	13 (7.6)	78 (45.3)	172 (59.7)	2.37 (3)	0.499
	Nothing	53 (45.7)	1 (0.9)	11 (9.5)	51 (44.0)	116 (40.3)		
Sum		128 (44.4)	7 (2.4)	24 (8.3)	129 (44.8)	288 (100.0)		

* $p < .05$

7.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 사용 허락 시 색조화장품 사용 의향 여부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 사용을 허락한다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8> 와 같이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 사용을 허락해도 사용할 의향이 없는 학생이 66.7%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학생 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연(2017)³⁰⁾의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은 화장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피부 보호를 위해 약간의 기초화장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을 결정할 때 피부건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사용을 허락한다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66$, $p<.05$). 학교성적별로는 중 이하 수준인 학생이 상 수준인 학생보다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사용을 허락한다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 사용을 허락해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없는 학생이 사용할 의향이 있는 학생보다 많았으며,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 사용을 허락한다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많았다.

Table 8. Using Makeup Cosmetics When Parents and Teachers Allow

	Sortation	Yes	No	Sum	χ^2 (df)	p
Grade	4th	19 (21.3)	70 (78.7)	89 (30.9)	8.66* (2)	0.013
	5th	36 (36.7)	62 (63.3)	98 (34.0)		
	6th	41 (40.6)	60 (59.4)	101 (35.1)		
School records	Top	24 (27.3)	64 (72.7)	88 (30.6)	2.10 (1)	0.148
	Below average grades	72 (36.0)	128 (64.0)	200 (69.4)		

Mother's job	Existence	56 (32.6)	116 (67.4)	172 (59.7)	0.12 (1)	0.734
	Nothing	40 (34.5)	76 (65.5)	116 (40.3)		
	Sum	96 (33.3)	192 (66.7)	288 (100.0)		

* p<.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공문화와 업계의 안전한 상품기획 및 건강한 마케팅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초등학생의 색조화장행동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의 288명의 초등 고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비율분석, 요인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은 외모 중에 얼굴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몸무게 27.8%, 키 25.4%, 기타 2.8% 순으로 나타났고, 고민이 없는 학생은 6.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외모 중에 얼굴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색조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주의를 받은 경험이 많았다. 또한 주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13.2%의 학생 중 44.7%는 주의를 받은 후에도 티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색조화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풀 메이크업을 한 친구에 대해 '따라하고 싶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심이 없다' 31.6%, '가까이하고 싶지 않다' 29.5%, '멋지다고 생각한다' 4.0% 순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에 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학생과 '친해지고 싶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44.8%, 44.4%로 진한 색조화장을 한 친구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넷째,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교사가 색조화장품 사용을 허락한다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사용할 의향이 없는 학생이 66.7%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학생 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초등학생의 색조화장행동에 대해 초등학생 자신들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진한 색조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나타내는 등 외모에 대해 비교적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또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모방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에 영향력이 큰 학교와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계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정된 조사지역과 대상 및 설문체계에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질 높은 연구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2017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보고서, KISDIICT통계정보 연구실, 2017.
- 2) 이진영, 중학생의 자아개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3, 2013.
- 3) 서윤경,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2003.
- 4) 송지선, 여중생의 메이크업 인식과 자가 메이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3, 2016.
- 5) 김미지,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6-19, pp. 96-99, 2014.
- 6) 박선애, 학령기아동의 외모 및 신체만족도와 화장품사용 실태 조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4, 2007.
- 7) 유애란, 프리틴세대의 화장품 사용실태와 화장품 구매성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4, 2014.
- 8) 장선미,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 2013.
- 9) 한가영, 남성화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2.1 : 61-77, p. 63, 2012.
- 10)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36230&cid=40942&categoryId=31630>, 검색어 프리틴 [preteen], 검색일 2018.06.02.
 - 11) 김미지,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1-12, 2014.
 - 12) 이경희, 초등학생의 외모 관심 및 만족도가 화장품 구매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5(4), pp. 40-42, 2014.
 - 13) Secord, P. F. & Jourard, S. M.,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pp. 343-347 재인용, 1953.
 - 14) 이경희, 초등학생의 외모 관심 및 만족도가 화장품 구매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5(4), p. 40, 2014.
 - 15) 임인숙, 여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차이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2011.
 - 16) 강명주, 10대 여자 청소년의 자기역량지각에 따른 화장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pp. 1-12, 2014.
 - 17) 박정연, 초·중·고등학생의 화장 인식과 뷰티관리 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3), pp. 377-385, 2017.
 - 18) 김주덕,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pp. 381-393, 2017.
 - 19) 박선애, 학령기아동의 외모 및 신체만족도와 화장품사용 실태 조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0) 김민석, <http://m.news1.kr/articles/?3218486?view=m>, 뉴스1코리아, 2018.01.30.
 - 21) 한정은, 베이비 화장품의 사용실태 및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37-38, 2010.
 - 22) 최빛나,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idxno=79676>, 소비자경제신문, 2018.05.30.
 - 23) 김민석, <http://news1.kr/articles/?3224298>, 뉴스1코리아, 2018.02.02.
 - 24)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25) 장선미, 청소년들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4, 2013.
 - 26) 고희자·박순천, 여성의 연령대별 외모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11(1), p. 77, 2015.
 - 27) 유애란, 프리틴세대의 화장품 사용실태와 화장품 구매성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4, 2014.
 - 28) 유애란, 프리틴세대의 화장품 사용실태와 화장품 구매성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9) 송현영, 여중생의 화장에 대한 인식 및 화장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pp. 26-51, 2013.
 - 30) 박정연, 초·중·고등학생의 화장 인식과 뷰티관리 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3), pp. 377-385, 2017.